

강진군, 가우도·고려청자박물관 연계 관광 활성화

㈜정인이엔지 200억원 투자 협약
휴양·숙박시설·스마트팜 체험 구축
2025년 3월 착공 2026년 4월 준공
지역 체류형 관광휴양 활성화 목표

강진군이 최근 휴양·숙박시설·스마트팜 체험관 등을 구축하는 200억원 규모의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노을 경관을 활용한 가우도·고려청자박물관 연계로 지역 명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인이엔지와 분홍나루 일원 발전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은 그동안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를 비롯해 수려한 노을경관을 활용한 분홍나루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천혜의 노을경관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생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인이엔지는 숙박시설, 농촌체험시설, 판매시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 강진군은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분홍나루 일원에 체험·휴양을 즐기고 분홍나루 노을경관을 보며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휴양시설이다. 숙박시설, 스마트팜 시설과 농촌체험시설이 조성되고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펫친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든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4억원이 투입돼 올 11월 준공 예정인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와 노을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넓은 바다와 갯벌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에 고바우공원을 증축,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함께 경치가 아름다운 가



강진군이 ㈜정인이엔지와 휴양·숙박시설 등을 구축하는 200억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최근 맺었다.

강진군 제공

우도, 강진의 대표 유적지 고려청자박물관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휴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허가 진행을 조속히 마치고 빠른 시일 안에 완공, 강진군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해 관광도시 강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강진군 내에 다양한 체류형 관광휴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여가·휴양문화 확산 등으로 강진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올해 1월 이후 검사자도 소급 적용

무안군은 ‘전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검사를 받는 날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비사업용차량이다.

감면율은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이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설교통과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2024년 1월 이후 검사를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무안군 건설교통과(061-450-5683)로 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해남군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고교 200m 범위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매점, 분식점, 문방구, 편의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 소속 공무원들과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교육을 병행할 예정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고열량·저영양 고가페인 함

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의 중요성,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방법, 영양성분 표시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교육함으로써 업소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과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이번 활동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원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방문해 창호와 화장실 창문 등을 교체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대장 황인섭)가 지난 18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22일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독거어르신 세대로 창호가 오래돼 빛물과 바람이 들어오고 방에 곰팡이가 슬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지기동대 대원들은 창호와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황인섭 대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기동대를 부르면 언제든지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영 해제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신 복지기동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28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완도군이 28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문화 시설 접근이 어려운 소외·취약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전시하는 행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고 복권위원회와 완도군이 후원한다.

참가·체험비는 전액 무료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이동형 과학기술 전시·체험물(주파수 패턴 외 37종), 미디어 인터랙티브 콘텐츠(가상현실 체험 외 5종), 과학 교실(3종), 과학 공연(베르누이 원리 외 7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전시로 구성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과학관을 통해 우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는 물론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캠핑페스타&트레킹 행사 개최
신안군 지도읍 선도서

신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선화의섬 지도읍 선도에서 캠핑페스타&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낚시, 조개잡이, 통발체험, 자전거 라이딩, 피크닉 콘서트, 섬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매해 지도읍 선도에 수선화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꽃이 지고 나면 다시 인적이 드문 섬마을로 변한다”며 “선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아름다운 섬이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캠핑, 트레킹, 낚시 주말농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찾는 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군,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진도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제28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1967년에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 및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우수한 품종이며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본 대회는 지난 1977년 제1회 우수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제28회를 맞이했으며 국내 우수 진도개들이 출품돼 외형과 핸들링 등을 심사 후 선발한다.

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내장형 칩)이 완료된 진도개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총 32마리의 우

수한 진도개를 선발해 ‘대상’으로 선발된 4마리에겐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46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2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는 미스트롯 유명 가수 장하온이 진도개를 홍보하기 위해 출시한 싱글 앨범 ‘돌백야’를 진도개의 고장 진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반려인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진도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산업화를 위해 개발한 인형인 ‘돌백(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 포토존을 운영하고 진도개테마파크의 인기 프로그램인 진도개 교감·달리기·어질리티 등이 연계 진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본 대회가 세계 명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함은 물론,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국의 진도개 반려인이 하나 될 수 있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